한국청소년연구
Studies on Korean Youth
2024. Vol. 35. No. 4 pp. 5~28.
eISSN 2288-8799
https://doi.org/10.14816/sky.2024.35.4.5

초기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 인식 변화 유형과 성 및 공감과의 관련성*

홍 예 지**

▌알기 쉬운 개요

2024년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괴롭힘을 흥미롭거나 재미있는 행위로 인식하는 청소년이 12.7%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이버 괴롭힘을 문제적 행위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변별하지 못하는 것이 사이버 괴롭힘에서의 의도나 행동을 결정한다는 데 본 연구는 주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을 시작으로 중학교 1학년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초기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 인식이 변화할 수 있음을 알고, 변화 양상을 유형화하였다. 나아가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변화 양상과 청소년의 개인 요인 중 성과 공감과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초기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급격히 증가하는 유형,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유형, 급격히 감소하는 유형 및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유형의 4개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의 성에 따른 사이버 괴롭힘 인식 변화 유형에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변화 유형에 따라 공감에도 차이가 있었다. 사이버 괴롭힘을 예방하고 조기 개입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본 연구는 변화 유형별 차별적인 개입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이 논문은 제14회 한국아동패널학술대회(2023.9.8.)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

**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조교수, yjhong@inha.ac.kr

투 고 일 / 2024. 5. 22.
심 사 일 / 2024. 9. 11.
심사완료일 / 2024. 9. 27.

▌초록

초기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 가해, 피해 및 목격의 경험이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이들이 사이버 괴롭힘을 문제적 행위로 인지하거나 변별하지 못하는 비율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 사이버 괴롭힘 인식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연구는 사이버 괴롭힘 행위로 이끄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인식에 주목하여 사이버 괴롭힘 인식이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알고,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종단적 변화 양상에 따른 잠재집단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초기 청소년의 개인 요인 중 성과 공감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11, 13, 14차 데이터에서 1,215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종단적 변화에는 선형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적용한 잠재집단은 4개 집단으로 유형화되었다. 즉, 초기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변화는 '급증가형', '고수준 유지형', '급감소형' 및 '저수준 유지형'의 4개의 잠재집단으로 구분되었고, 가장 많은 청소년이 고수준 유지형에 속했으며, 급증가형, 급감소형 및 저수준 유지형 순이었다. 둘째,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급증가형'보다 '고수준 유지형'에, '급감소형'보다 '고수준 유지형'에, '저수준 유지형'보다 '고수준 유지형'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에서 '급증가형'과 '급감소형' 간 및 '고수준 유지형'과 '급감소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표현적 공감은 잠재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연구는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인식의 변화 유형을 확인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이버 괴롭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차별적인 개입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성과 인지적, 정서적 및 표현적 공감으로 구성된 다차원적 공감과의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초기 청소년, 사이버 괴롭힘 인식, 성, 공감, 성장혼합모형

Ⅰ. 서 론

사이버 괴롭힘은 사회적 규범이 정보사회기술의 발달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회적 아노미 현상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것(정여주, 김한별, 2017)으로 현대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대표적인 도덕적 위반 상황이다(Gini, Pozzoli & Hauser, 2011).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의 괴롭힘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선행연구(Hong & Lee, 2022; Liu, Yin & Huang, 2021; Yang, Li, Gao & Wang, 2022)는 사이버 괴롭힘의 가해, 피해 또는 목격하는 행위 등 역할을 확인하거나 행위의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의 괴롭힘을 이해하기 위해 개인의 심리적 요인(홍예지, 2023; Barlett, 2015; Hong & Lee, 2022; Schultze-Krumbholz, Hess, Pfetsch & Scheithauer, 2018)을 보호 요인과 위험 요인으로 검토하여 괴롭힘 행위에 대한 적절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온라인 공간에서 실질적인 괴롭힘 행위로 이끄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사이버 괴롭힘 인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이버 괴롭힘을 흥미롭거나 재미있는 행위로 인식하는 청소년이 17.2%로 전년 대비 3.9퍼센트 포인트 증가하였다(방송통신위원회, 2024). 사이버 괴롭힘은 더 심각한 사회문제적 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이버 괴롭힘의 피해자가 겪는 무차별적 폭력으로 인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은 사이버 괴롭힘을 재미, 오락, 또래 인정, 기술력 과시 등의 수단으로 여겨 피해자가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높다(Wright, 2017)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Ajzen, 1991)은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태도가 사이버 괴롭힘에 가담하려는 의도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며, 이는 개인의 행동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하였다. 이에 청소년이 사이버 괴롭힘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내리는 주관적 인식이 궁극적으로 사이버 괴롭힘 행동의 의도 및 행동을 결정한다는 데 사이버 괴롭힘 인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괴롭힘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요인이자 사이버 괴롭힘을 예방하고 조기 개입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 인식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Yurdakul & Bütün Ayhan, 2023)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사이버 공간에서의 문제 행위를 인지하고 변별하는 능력을 확인한 연구는 매우 소수이며(Saladino, Eleuteri, Verrastro & Petruccelli, 2020), 국내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관련하여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주로 사이버 괴롭힘의 중재자로서 학부모나 교사를 대상으로 이들의 사이버 괴롭힘 인식(홍경선, 2014; Campbell, Whiteford & Hooijer, 2019; Macaulay, Betts, Stiller & Kellezi, 2018)을 확인하여 사이버 괴롭힘을 직,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청소년 본인의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사이버 괴롭힘의 가해자, 피해자 또는 주변인과 같은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한 청소년의 역할을 구분하여 이들의 경험과 인식(Cuadrado-Gordillo & Fernández-Antelo, 2016; Giménez Gualdo, Hunter & Durkin et al., 2015)을 확인하거나 괴롭힘, 폭로, 명예 훼손, 배제, 사칭 등 사이버 괴롭힘의 유형을 나누어 각 유형에 대한 인식(Saladino et al., 2020)을 살펴보는 데 그쳤다.

초기 청소년은 사춘기 변화의 영향으로 정서적으로 각성의 수준이 높고, 신체적, 사회적, 법적 및 재정적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강력한 자극이나 경험을 추구하려는 욕구인 자극추구 성향(박재홍, 김성환, 2011)을 보인다. 또한 충동성 등 자기 조절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이 시기는 다른 시기에 비해 부정적인 영향에 더 취약하다(김신아, 한윤선, 2015). 연구마다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연령의 범위에 차이가 있지만 이 시기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전이기를 말하며, 대략 10세부터 13세를 포함하는 시기다(Rueth, Otterpohl & Wild, 2016). 이에 이 연구는 사이버 괴롭힘의 저연령화 추세와 사이버 괴롭힘의 간접적인 목격 경험이 초등학생에게서 가장 높음(방송통신위원회, 2024)을 근거로 초등학교 고학년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이버 괴롭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처 전략의 제시 및 다양한 대상과 주제 등으로 확대된 예방 교육의 효과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이며,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로 학교급의 전환기를 경험하며 변화 양상이 다를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변화에 주목한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특히 사람 중심 접근 방법을 토대로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이질적인 변화 양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4개년에 걸친 종단연구로 확장하려는 이러한 시도를 통해 초기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 인식 변화 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개입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나아가 이 연구는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종단적 변화 유형과 개인 요인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개인의 발달이 주변 다양한 환경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생물생태학적 체계 이론(Bronfenbrenner & Morris, 2006)을 바탕으로 개인에게 가장 직접적이면서 즉각적인 환경을 의미하는 미시체계에 주목하였으며, 다양한 요인 중 청소년의 성과 공감이 사이버 괴롭힘 인식 변화 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 예측하였다. 무엇보다 성별에 따른 사이버 괴롭힘의 이해는 그동안 많은 주목을 받아왔지만 사이버 괴롭힘 행위 그 자체 또는 주변인 유형에 초점을 맞추었고, 횡단적 연구 설계를 적용해 왔다. 이에 연구마다 일치하지 않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의 성에 따른 사이버 괴롭힘 인식 변화 유형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공감은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다양한 역할을 이해하기 위한 청소년의 주요 심리적

요인으로 고려되었다. 지금까지 공감을 사이버 괴롭힘의 예측요인으로 상정한 연구가 대다수이며, 공감의 척도, 연구 대상의 국적 또는 연령의 차이 등으로 인해 연구마다 사이버 괴롭힘과 공감 간에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인지적, 정서적 및 표현적 공감을 포함하는 다차원의 공감 척도를 활용하여 초기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 인식과의 관련성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공감은 주로 사건의 심각성과 같은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 행위에 대한 초기 청소년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이들의 공감이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사이버 공간에서 괴롭힘을 더 높은 수준에서 인식하여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집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집단보다 인지적 공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로써 이 연구는 실질적인 사이버 괴롭힘 행위가 아닌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변화 유형에 따른 인지적, 정서적 및 표현적 공감의 차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하여 풍부한 해석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한다. 이에 따라 도출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기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 인식 변화에 따라 구분되는 잠재집단은 몇 개이며, 각 잠재집단의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기 청소년의 성에 따른 사이버 괴롭힘 인식 잠재집단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초기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 인식 잠재집단에 따른 공감의 차이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변화 유형

사이버 괴롭힘은 전자 의사소통망을 활용해 타인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말한다(Menesini & Nocentini, 2009). 즉, 정보 의사소통 매체를 이용해 악의가 있고, 불쾌감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사진과 동영상의 유포 또는 스토킹, 단체 대화방에 초대하여 욕설을 하고 괴롭힐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빼앗아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및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사회인지(social cognition)는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을 비롯한 타인의 감정, 바람, 생각, 의도 및 행위의 이해에 필요한 인지적 능력을 의미한다(Flavell & Miller, 1998). 즉, 일상의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정교한 사회적 상황에서 필요한 인지 및 추론 능력으로 이는 사회적 행위를 예측한다. 이처럼 개인의 행위는 인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가족에서 또래, 주변 타인으로 사회적인 관계의 맥락이 확장되면서 아동의 사회인지 능력은 대인관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인지 능력이 적절하게 발달하지 못할 경우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된다(최인숙, 이강이, 2010).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은 오프라인에서의 또래 간 괴롭힘을 설명해 왔다(Swearer, Wang, Berry & Myers, 2014). 인간은 자신의 삶의 경험에 기반한 특정한 지식 구조인 스키마(schemas) 또는 스크립트(scripts)를 기억 장치에 저장하여 행위가 허용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금지된 행위를 규제하기도 한다(Crick & Dodge, 1996). 실제 공격 행위와 공격 행위와 관련이 있는 스키마 간에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밝힌 연구(Bosworth, Espelage & Simon, 1999)를 근거로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을 이해하기 사전 단계로 이 연구는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사이버 괴롭힘 인식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괴롭힘 행위에 대한 인지와 변별 능력을 말한다. 사이버 괴롭힘은 개인이 자신의 행위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인식의 부족함에 기인(Yurdakul & Bütün Ayhan, 2023)하는데, 이처럼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의 반(反)괴롭힘 태도(anti-bullying attitudes)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여겨져 왔다(Sobba, Paez & ten Bensel, 2017).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Ajzen, 1991)은 사이버 괴롭힘에 가담하는 가장 강력한 예측 요인으로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태도를 언급하였고, 이러한 태도는 개인이 특정 행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Heirman & Walrave, 2012)고 하였다. 이에 사이버 괴롭힘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낮추고 부정적인 태도를 높여야 하며,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와 같은 주관적인 신념을 넘어 사이버 괴롭힘을 문제 행위로 인식하고 변별할 수 있는 능력 즉, 사이버 괴롭힘 인식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사이버 괴롭힘 인식은 이후 사이버 괴롭힘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 인식에 주목한 연구는 소수다. 예를 들어, Bae(2021)는 사이버 괴롭힘이 위험하며, 위법이라고 인지하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더 유의하게 낮은 수준에서 사이버 괴롭힘 가해 행위를 보인다고 하였고, Barlett(2015)은 4차년도 종단 자료를 활용한 결과, 미국 고등학생의 사이버 괴롭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와 사전의 사이버 괴롭힘 참여 경험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후 이들의 사이버 괴롭힘 행위를 유의하게 높인다고 하였다. 이밖에 사이버 괴롭힘 인식을 확인한 연구가 몇몇 존재하나 비구조화된 인터뷰(Bae, 2021; Meter, Budziszewski, Phippis & Beckert, 2021)로 진행되었거나 중, 고등학생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와 유사한 맥락에서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종단적 변화 양상을 확인한 연구는 Barlett, Gentile, Dongdong and Khoo(2019)가 유일하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싱가폴 청년의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고수준 유지집단, 저수준 유지집단, 증가집단 및 감소집단의 네 개의 집단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2. 성에 따른 사이버 괴롭힘 인식 변화 유형

성에 따른 사이버 괴롭힘의 차이는 자주 언급되었다. 주로 대표적인 관계적 공격 행위인 사이버 괴롭힘(Conway, Gomez-Garibello, Talwar & Shariff, 2016)에 전통적 괴롭힘과 유사한 성차가 존재하거나 사회화(socialization)이론(Sigmoid, Stanton & Snyder, 1995)에 따라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에게 요구하는 괴롭힘의 대응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성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차가 존재하지 않거나(Barlińska, Szuster & Winiewski, 2018),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상황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거나 가해자를 지지하고, 심지어 가해자에게 보복하는 경향이 높다(Caivano & Talwar, 2023; Moxey & Bussey, 2020)는 등 연구마다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왔음을 알 수 있다.

사이버 괴롭힘 인식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연구도 소수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Saladino 외(2020)는 괴롭힘, 명예 훼손, 사칭과 같이 사이버 괴롭힘의 유형을 나누었을 때 더 공격적이고, 위협적 행위와 관련된 시나리오에 대한 남학생의 인식이 여학생보다 더 높다고 하였고, Elçi와 Seçkin(2016)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더 낮다고 하였다. 반면, Ozden과 Icellioglu(2014)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사이버 괴롭힘이 더 해롭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처럼 사이버 괴롭힘 행위뿐만 아니라 인식에 있어서도 성에 따른 일관되지 않은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횡단적 연구 설계를 보완하고, 사이버 괴롭힘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변화 유형에 성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변화 유형에 따른 공감

공감은 타인의 관점이나 정서를 이해하고, 타인의 정서에 대리적으로 경험하고 반응할 줄 아는 것을 말한다(Davis, 1983).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비언어적 정보의 부족은 오프라인에서보다 개인의 공감을 제한하고(Machackova, Debkova, Sevcikova & Cerna, 2016), 행위의 결과에 대한 인식의 부족을 더욱 심화시킨다(Baldry, Farrington, Blaya & Sorrentino, 2018). 그런데 공감의 수준은 사건의 심각성과 같은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Fischer,

Greitemeyer, Pollozek & Frey, 2006). 예를 들어, Wang(2021)은 심각성이 높은 사이버 괴롭힘 사건을 목격한 방관자는 더 높은 수준의 공감을 경험하는 반면,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주변인의 인식이 낮을수록 피해자가 고통을 덜 겪는다고 믿어 공감의 수준이 낮다고 하였다.

공감은 타인의 신념,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는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상태에 반응하는 정서적 공감의 다차원으로 구분된다(Balińska et al., 2018). 선행연구는 주로 가해 및 피해를 포함한 사이버 괴롭힘 경험과 인지적 공감 및 정서적 공감과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다는 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사이버 괴롭힘 경험은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모두 부적 관련(Van Noorden, Bukowski, Haselager, Lansu & Cillessen, 2016; Zych, Baldry, Farrington & Llorent, 2019)이 있거나 주변인 유형에 따라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 모두 사이버 괴롭힘의 방어 행위와 정적 관련(Barlińska, Szuster & Winiewski, 2013)이 있지만 인지적 공감만이 방어 행위와 정적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후속 연구(Balińska et al., 2018)도 존재하였다. 여기서 나아가 사이버 공간에서 괴롭힘 행위에 대한 인식의 변화 유형에 따른 인지적, 정서적 및 표현적 공감의 차이를 살펴보고자하며, 유사한 맥락에서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규범적 신념과 인지적 공감 및 정서적 공감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연구(Ang, Li & Seah, 2017)는 사이버 괴롭힘 행위와 정서적 공감 간의 관계는 괴롭힘에 대한 규범적 신념이 높은 집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 또는 규범적 신념에서 나아가 사이버 괴롭힘을 문제라고 인식하고 변별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초기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인식의 종단적 변화를 유형화하고 궁극적으로 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우리나라 아동의 발달 정보 및 아동을 둘러싼 변화와 주변 환경에서 제공되는 경험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이해하고, 발달에 적합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아동과 가족의 특성, 지역사회와 육아정책에 관련된 변인을 매년,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층화다단계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즉, 2008년 4월부터 7월 중 전국에서 표집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예비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이 중 패널 참여 의사가 있어 실제 본조사에 응답

한 총 2,150명의 가구가 패널로 확정되었다. 성인기에 진입하는 시점인 2027년까지 매해 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11차년도까지 표본 유지율은 69.00%, 13차년도까지 표본 유지율 67.20%, 14차년도까지 표본 유지율은 64.90%이다. 이후 패널조사는 문항별 특성과 아동의 연령에 따른 중요도를 고려하여 조사 주기를 다르게 설정하기 때문에 매년 동일한 변인이 측정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 사이버 괴롭힘 인식은 11차(초등학교 4학년), 13차(초등학교 6학년) 및 14차년도(중학교 1학년)에 측정되었고, 12차년도에서는 측정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사이버 괴롭힘 인식 3개의 차년도에 모두 응답한 총 1,21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고, 공감은 14차년도(중학교 1학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11차년도 기준으로 아동의 연령은 평균 만 10세 5개월(SD = 1.25)이며, 성별에 따라 남학생 620명(51.0%), 여학생 595명(49.0%)이다.

2. 주요 변인

1) 사이버 괴롭힘 인식

사이버 괴롭힘 인식은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2015)의 인터넷 윤리의식 척도를 활용하여 청소년 자기 보고로 측정되었다. 해당 도구는 만 6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허락받지 않고 이용하기,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비방하기,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거나 퍼뜨리기, 집단 따돌림에 가담하기 등의 다양한 인터넷 역기능 현상 여섯 개의 항목에 대해 아동이 얼마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는 11차 .99, 13차 .98, 14차년도 .97이다.

2) 공감

공감은 홍예영과 김유숙(2015)의 청소년 공감 척도를 활용하여 청소년 자기 보고로 측정되었다. 원 척도는 총 17개의 문항이나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의 논의 후 신뢰도 문제가 있는 두 문항을 삭제하여 총 15개의 문항으로 아동의 공감을 확인하였다.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상황에서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일을 찾는다” 등 표현적 공감은 7문항,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내게는 쉬운 일이다” 등 인지적 공감은 4문항,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등 정서적 공감은 4문항으로 구성되며, 6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항상 그렇다:6점)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표현적 공감, 인지적 공감 및 정서적 공감이 각각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는 표현적 공감 .91, 인지적 공감 .84, 정서적 공감 .83이며, 전체는 .92다.

3. 분석 방법

이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초기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 인식 변화에 다수의 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ing, GMM)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이 하나의 모집단에 속한다는 가정으로 동질적인 집단에 대한 변화의 양상을 추정하는 잠재성장모형과 다르게 집단 내 관찰되지 않은 이질적 성장 특성을 보이는 하위 잠재집단을 추적할 수 있는 성장혼합모형은 이질적인 변화 궤적을 보이는 잠재집단별로 각기 다른 성장요인의 모수를 추정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다(Muthén & Muthén, 2000). 먼저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변화에 적합한 모형을 결정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3개의 측정 시점에서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함수 형태를 파악하였다. 무성장모형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을 비교하여 초기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 인식에 가장 적합한 변화 함수 모형을 선택하였다. 이후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하여 가장 적절한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준거지수, 분류의 질 및 모형비교 검증의 통계적 적합도를 고려하였다. 정보준거지수는 AIC, BIC, sBIC를 확인하였고, 세 개의 정보지수 모두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의미한다. 분류의 질을 확인하는 Entropy값은 대략 0.8이상일 때 분류의 질이 양호한 것이라 볼 수 있다(Muthén, 2004). 다음으로 경쟁모형과의 상대적 적합을 통계적 검증으로 확인하는 조정된 카이제곱 차이검증 즉, LMR과 BLRT을 살펴보았다. 이는 잠재집단이 k개인 모형을 지지하기 위해 잠재집단이 k-1개인 모형이 기각되는지 검증하는 방법이다. p값이 유의하지 않으면 k-1개의 잠재집단 모형을 선택하고, 유의하면 k개의 잠재집단 모형을 선택한다(Lo, Mendell & Rubin, 2001). 다양한 적합도 지수와 해석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초기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 인식 잠재집단 수를 결정한 후, 성별에 따른 분류된 잠재집단의 차이와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변화 유형에 따른 공감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3단계 추정방법을 적용하였다(Asparouhov & Muthén, 2014). 이 방법은 예측요인 및 결과요인이 모형에 투입될 경우, 잠재집단의 분류에 미치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먼저 잠재집단의 지표를 활용해 예측요인과 결과요인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 잠재집단을 추정한다. 다음으로 각 개인에게 잠재집단을 할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류의 오류를 제약하여 성이 사이버 괴롭힘 인식 변화 유형에 미치는 영향은 다항로지스틱분석으로, 사이버 괴롭힘 인식 변화 유형에 따른 공감의 차이는 차이검증을 통해 분석되었다. 이는 1단계 접근

법보다 추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Asparouhov & Muthén, 2014). 분석을 위해 Mplus 8.4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MLR(Maximum Likelinood estimation with Robust standard errors)을 사용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상관관계 분석 및 기술통계치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와 기술통계치는 표 1과 같다.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평균은 11차 4.03점(SD=1.47), 13차 4.16점(SD=1.35), 14차 4.39점(SD=1.03)으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공감은 하위요인별로 인지적 공감 4.35점(SD=.90), 표현적 공감 4.22점(SD=.90) 및 정서적 공감 4.19점(SD=.97) 순이었다. 연구 변인의 왜도 및 첨도는 적정한 값으로(왜도<2, 첨도<4), 본 자료가 다변량정규성을 충족시켰다(Hong, Malik & Lee, 2003).

상관분석 결과, 청소년의 성은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모든 시점 및 공감의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고(r=.10~.21, p<.001), 사이버 괴롭힘 인식 11차와 공감의 모든 하위요인을 제외하고 사이버 괴롭힘 13, 14차와 표현적,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07~.18, p<.05, p<.01, p<.001).

표 1
주요 변인의 상관분석 결과 및 기술통계치

	1	2	3	4	5	6	7
1. 청소년 성	-						
2. 사이버 괴롭힘 인식 11차	.10***	-					
3. 사이버 괴롭힘 인식 13차	.16***	.21***	-				
4. 사이버 괴롭힘 인식 14차	.11***	.08**	.26***	-			
5. 표현적 공감	.11***	.04	.07*	.15***	-		
6. 인지적 공감	.12***	.00	.09**	.18***	.58***	-	
7. 정서적 공감	.21***	.05	.09**	.17***	.61***	.48***	-
범위	0~1	1~5	1~5	1~5	1~6	1~6	1~6
평균	.49	4.03	4.16	4.39	4.22	4.35	4.19
표준편차	.50	1.47	1.35	1.03	.90	.90	.97
왜도	.04	-1.34	-1.61	-2.36	-.46	-.34	-.52
첨도	-2.00	.06	.92	4.62	.75	.19	.62

*p<.05, **p<.01, ***p<.001. 청소년의 성은 남=0, 여=1로 코딩.

2.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분류 및 특성

1) 잠재집단의 결정

사이버 괴롭힘 인식 변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3개 시점의 무변화 모형(χ^2=32.795, df=2, CFI=.781, TLI=.672, RMSEA=.113, SRMR=.057)과 선형변화 모형(χ^2=1.533, df=1, CFI=.996, TLI=.989, RMSEA=.021, SRMR=.010)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표본크기에 민감한 χ^2값 차이 검증을 보완하기 위하여 CFI, TLI, RMSEA 및 SRMR의 적합도 지수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CFI와 TLI는 .90이상(Hu & Bentler, 1999), RMSEA와 SRMR은 .08이하(Browne & Cudeck, 1993)가 양호다는 준거에 따라 선형변화모형이 연구모형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변화에 따라 분류된 잠재집단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모형의 잠재집단의 수를 하나씩 늘려가며 정보지수, Entropy, LMR 및 BLRT를 확인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잠재집단의 수가 1개에서 5개로 증가할 때, 정보지수인 AIC, BIC 및 sBIC값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Entropy값은 집단의 수와 상관없이 .99 이상을 유지하여 양호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형의 비교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LMR과 BLRT는 잠재집단의 수를 5개까지 증가시켜도 계속 유의하였다. AIC, BIC 및 sBIC값의 정보지수를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다 감소가 둔화되는 4개의 집단이 가장 적절한 잠재집단의 수로 고려되었으나 분류의 질과 모형의 비교로는 잠재집단 구분의 정확성을 판단하기에 모호하였다. 이에 정보지수 기준과 함께 집단별 이질성에 대한 해석의 가능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설명력 있는 잠재집단의 수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Nylund-Gibson, Grimm, Quirk 외(2014)의 근거에 따라 통계적 검증과 해석의 측면에서 잠재집단의 수가 4개일 때 집단별 이질성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다고 보았다. 즉, 사이버 괴롭힘 인식 변화를 시각화한 그래프에서 잠재집단의 수가 4개와 5개일 때 4번째와 5번째 잠재집단의 그래프가 다소 상이한 위치에서 동일한 변화 양상을 보여 두 잠재집단이 해석의 측면에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잠재집단이 4개일 때, 집단의 구분이 명확하고 각 집단의 분류율이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Jung & Wickarma, 2008)에도 충족하여 이후의 분석은 이를 기초로 하였다.

표 2
잠재집단 분류 기준

분류기준		잠재집단 수				
		1	2	3	4	5
정보지수	AIC	11952.076	10142.997	9508.149	8553.877	8418.474
	BIC	11992.896	10188.920	9579.584	8630.415	8510.319
	sBIC	11967.485	10160.332	9535.114	8582.768	8453.144

분류기준		잠재집단 수				
		1	2	3	4	5
모형비교검증	LMR	-	p<.001	p<.001	p<.001	p<.05
	BLRT	-	p<.001	p<.001	p<.001	p<.001
분류의 질	Entropy	-	.997	.995	.997	.991
n (%)	1	100	960 (79.01)	110 (9.05)	221 (18.19)	199 (16.38)
	2		255 (20.99)	223 (18.35)	881 (72.51)	79 (6.50)
	3			882 (72.59)	79 (6.50)	30 (2.47)
	4				34 (2.80)	32 (2.63)
	5					875 (72.02)

2) 분류된 잠재집단의 특성

분류된 각 잠재집단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3 및 그림 1과 같다. 첫 번째 잠재집단은 초등학교 4학년의 초기치가 1.30점으로 가장 낮지만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중학교 1학년 때의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4점 후반까지 높아지는 양상을 보여 '급증가형'이라 명명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18.2%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 잠재집단은 초기치가 4.75점으로 높으나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매우 미미하게 감소하나 고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고수준 유지형'이라 명명하였으며, 전체의 72.5%를 차지하였다. 세 번째 잠재집단은 초기치가 4.77점으로 가장 높으나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 집단으로 '급감소형'이라 명명하였으며, 전체의 6.5%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잠재집단은 초등학교 4학년의 초기치가 1.42로 낮고, 이후 매우 미미하게 증가하나 저수준을 유지하여 '저수준 유지형'이라 명명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2.8%를 차지하였다.

표 3
잠재집단별 명칭, n (%) 및 함수

잠재집단		n (%)	함수	계수	표준오차	p
1	급증가형	221 (18.2%)	절편	1.303	.031	.000
			일차함수	1.702	.021	.000
2	고수준 유지형	881 (72.5%)	절편	4.754	.012	.000
			일차함수	-.032	.009	.000
3	급감소형	79 (6.5%)	절편	4.771	.045	.000
			일차함수	-1.661	.044	.000
4	저수준 유지형	34 (2.8%)	절편	1.418	.103	.000
			일차함수	.027	.058	.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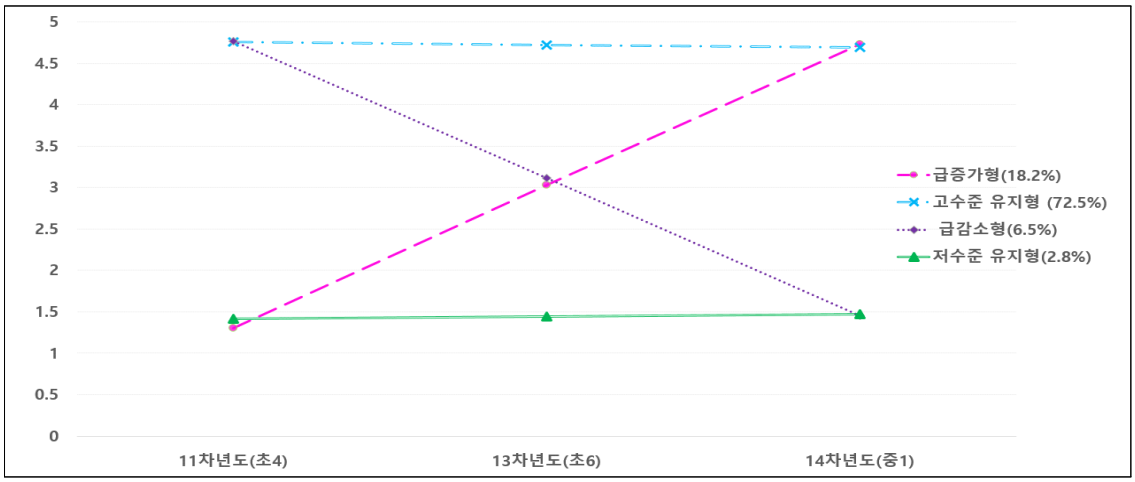

그림 1.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잠재집단별 변화 양상

3. 성에 따른 사이버 괴롭힘 인식 잠재집단의 차이

성에 따른 사이버 괴롭힘 인식 잠재집단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청소년의 성은 남학생 0, 여학생 1로 재코딩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 표 4에 제시된 계수는 다항로짓 계수로 예측요인에 대한 잠재집단 간의 비교를 위해 한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고 비교 집단에 속할 확률에 대한 로짓값이다. 초기 청소년의 성은 '급증가형'과 '고수준 유지형', '고수준 유지형'과 '급감소형' 및 '고수준 유지형'과 '저수준 유지형'간의 비교에서 유의하였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급증가형'보다 '고수준 유지형'에 속할 승산이 1.577배 더 컸고, '급감소형'보다 '고수준 유지형'에 속할 승산이 .583배 더 컸으며, '저수준 유지형'보다 '고수준 유지형'에 속할 승산이 .433배 더 컸다.

표 4
성에 따른 잠재집단의 차이

변인	급증가형 vs. 고수준 유지형		급증가형 vs. 급감소형		급증가형 vs. 저수준 유지형		고수준 유지형 vs. 급감소형		고수준 유지형 vs. 저수준 유지형		급감소형 vs. 저수준 유지형	
	계수 (표준 오차)	승산비	계수 (표준 오차)	승산비	계수 (표준 오차)	승산비	계수 (표준 오차)	승산비	계수 (표준 오차)	승산비	계수 (표준 오차)	승산비
성	.455 (.153)**	1.577	-.084 (.269)	.920	-.382 (.392)	.683	-.539 (.242)*	.583	-.837 (.374)*	.433	-.298 (.435)	.742

*p<.05, **p<.01. 왼쪽에 제시한 집단이 준거집단임.

4.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잠재집단에 따른 공감의 차이

초기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 인식 변화 유형에 따른 공감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사이버 괴롭힘 인식 변화 유형별로 추정된 공감의 회귀계수와 이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는 구체적으로 '급증가형'과 '급감소형' 간 및 '고수준 유지형'과 '급감소형' 간에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시 말해, 인지적 공감은 '급증가형'과 '급감소형'간, '고수준 유지형'과 '급감소형'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정서적 공감은 '급증가형'과 '급감소형'간, '고수준 유지형'과 '급감소형'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잠재집단에 따른 표현적 공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5
잠재집단에 따른 공감의 회귀계수 및 차이 검증

변인	잠재집단	계수	표준오차	차이 검증(χ^2)		
				고수준 유지형	급감소형	저수준 유지형
표현적 공감	급증가형	4.194	.060	.611	1.230	2.180
	고수준 유지형	4.246	.030	-	2.648	3.496
	급감소형	4.046	.119	-	-	.276
	저수준 유지형	3.941	.161	-	-	-
인지적 공감	급증가형	4.414	.059	.311	12.178***	3.350
	고수준 유지형	4.377	.030	-	12.147***	2.857
	급감소형	3.975	.111	-	-	.425
	저수준 유지형	4.102	.160	-	-	-
정서적 공감	급증가형	4.167	.066	.798	4.994*	2.162
	고수준 유지형	4.233	.032	-	9.036**	3.648
	급감소형	3.865	.118	-	-	.013
	저수준 유지형	3.889	.177	-	-	-

*p<.05, **p<.01, ***p<.001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초기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 인식 변화 유형을 확인하고, 성에 따른 사이버 괴롭힘 잠재집단의 차이와 사이버 괴롭힘 인식 잠재집단에 따른 공감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따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초기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변화는 '급증가형', '고수준 유지형', '급감소형' 및 '저수준

유지형'으로 구분되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이버 괴롭힘 인식은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고수준 유지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낮은 수준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급증가형', 높은 수준에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급감소형',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저수준 유지형'순이었다. 이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초기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 인식 변화 유형의 이질성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4점 후반대로 높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비록 초등학교 4학년에는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지만 중학교 1학년에는 네 개의 집단 중 가장 높은 수준에까지 도달한 집단이 대략 90%를 차지하여 초기 청소년의 대다수가 중학교 1학년 시점에 사이버 공간에서 행위를 문제로 제대로 인지하고,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결과다. 무엇보다 초기 시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가 학교급별 전환기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청소년이 6.5%, 1.4점의 낮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청소년이 2.8%를 차지하였다는 것은 변화의 특이 양상을 보이는 두 집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문제 인식이 점차 급격하게 둔감해지거나 지속적으로 낮은 두 집단의 청소년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문제 행위를 인지적으로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는 수준이 높았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 두 집단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도덕적 이탈을 확인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둘째, 초기 청소년의 성에 따른 사이버 괴롭힘 인식 잠재집단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구체적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급증가형', '급감소형' 및 '저수준 유지형'보다 '고수준 유지형'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사이버 괴롭힘 인식이 더 낮음을 보고한 Ozden과 Icellioglu(2014)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초기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 인식 변화 유형에 미치는 성별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또래 간의 괴롭힘에 더 수용적인 것(Thorberg, Pozzoli, Gini & Hong, 2017)과도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사이버 괴롭힘 인식은 다양한 인터넷 역기능 현상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말한다. 이에 사이버 괴롭힘 상황이 문제라고 인식하는 수준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더 높은 것은 남학생이 해당 상황을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일로 여겼을 가능성(홍예지, 2023)이 높고, 사이버 괴롭힘 상황이 내포하는 부정적 시그널에 대해 여학생보다 둔감했기 때문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초기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 인식 변화 유형에 따른 공감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에서 '급증가형'과 '급감소형' 간 및 '고수준 유지형'과 '급감소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사이버 괴롭힘 인식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낮은 수준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집단에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수준이 더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이버 괴롭힘 행위를 넘어서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변화 유형도 이들의 공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특히 이 연구는 공감을

표현적,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의 세 차원으로 나누어 각각의 관련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급증가형’과 ‘급감소형’ 간 및 ‘고수준 유지형’과 ‘급감소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 것은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규범적 신념이 높은 집단에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Ang et al., 2017)와는 다소 맥을 같이 하지 않은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잠재집단 간 차이에 미치는 타인의 신념이나 감정 및 의도를 알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등 인지적으로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의 영향력이 타인의 정서적 상태에 반응하여 함께 슬퍼하고, 염려하는 등의 정서적인 공감 능력보다 더 컸는데 이는 사이버 괴롭힘 인식과 인지적 공감이 모두 인지적 변별 능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밖에 표현적 공감에서 사이버 괴롭힘 인식 변화 유형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공감을 다차원으로 구분하여 사이버 괴롭힘 주변인 유형과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가 다소 일관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일부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표현적인 공감은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의 결과와 다른 패턴을 보였는데 이는 표현적인 공감 능력을 확인하는 문항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고, 곤란에 처한 타인을 기꺼이 도와주며, 고통받는 친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찾는다 등으로 구성된 표현적 공감이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에 비해 적극적인 공감적 행위를 표현하는 것으로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행위와는 관련이 높을 수 있는 반면에 보다 간접적인 인터넷 역기능의 문제 상황에 대한 인지적 측면을 확인하는 사이버 괴롭힘 인식과의 관련은 미미하였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초기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사이버 괴롭힘을 직,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청소년이 사이버 괴롭힘 상황이 제공하는 단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문제적 행위에 대한 심각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교과시간에서뿐만 아니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 내·외에서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시행되어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변화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청소년이 2.8%로 소수지만 존재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다. 이는 이들 집단의 특성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들에게 차별적인 사이버 괴롭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양한 사이버 괴롭힘 가상 시나리오 상황을 제작하여 개개인의 사이버 괴롭힘 인식을 점검하는 사이버 괴롭힘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사이버 괴롭힘을 문제라고 인식하였을 때 주변인으로서 다양한 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영상,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간접 체험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 인식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환경 내 주변의 다양한 사회적 단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에 맞는 다양한 감정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도록 돕는 감정 강화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때 목격자로서 피해자가 느끼는 불편함과 심리적 압박감 등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정서를 올바르게 인지할 수 있는 대리적 정서 능력을 높이기 위한 연습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된다면 이는 향후 사이버 괴롭힘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초기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 인식을 높이는 것에서 나아가 가해, 피해 등의 괴롭힘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보호 요인과 위험 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발달 시기별 보호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부모 및 또래와의 애착 등 심리·정서적 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도덕적 이탈, 또래 동조성, 우울 등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선행된다면 초기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 연구는 초기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 인식 변화를 유형화하고, 사이버 괴롭힘 인식 변화 유형과 성과 공감과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이 연구는 사이버 괴롭힘의 행위를 넘어 초등학교 4학년 시점부터 중학교 1학년 시점까지 초기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 인식을 면밀히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하였지만 초등학교 5학년 시점의 데이터를 포함하지 못했다. 또한 3개년도에 걸쳐 측정한 공감의 변화 양상을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하지 못했다는 데 한계가 있다. 이는 2차 자료를 활용한 한계로 연구 결과의 해석에 주의해야 할 것이며, 추후 연구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교 전이 과정을 아우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종단적 변화를 확인한다면 의의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사이버 괴롭힘 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청소년의 개인 요인이나 부모나 또래 및 학교 요인에 대해 검증하지 못했다. 추후 관련 요인을 검토하여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점차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온라인 과제를 활용한 실험 방법을 적용하여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 인식을 확인한다면 기존의 설문지법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며, 사이버 괴롭힘 인식을 이해하는 데에도 더욱 풍부한 결과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신아, 한윤선 (2015). 초기청소년의 학교적응과 휴대전화 의존도 간의 관계에서 방과후 보호자부재의 조절효과. **아동학회지, 36**(1), 147-162.

박재홍, 김성환 (2011). 청소년기 뇌 발달과 인지, 행동 특성. **생물치료정신의학, 17**(1), 11-20.

방송통신위원회 (2024). 202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정여주, 김한별 (2017). 청소년 사이버폭력 피해 행동반응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아시아교육연구, 18**(1), 51-74.

최인숙, 이강이 (2010). 사회정보처리 구성요소와 정서요인이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6), 15-34.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 (2015). **2014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서울: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홍경선 (2014). 사이버불링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학부모의 사이버불링 인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2**(4), 347-372.

홍예영, 김유숙 (2015). 청소년 공감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22**(8), 159-183.

홍예지 (2023). 사이버 괴롭힘 발생 가능 상황에서 주변인 유형에 미치는 청소년의 성, 도덕적 이탈과 공감의 영향. **아동학회지, 44**(1), 43-55. doi:10.5723/kjcs.2023.44.143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doi:10.1016/0749-5978(91)90020-T

Ang, R. P., Li, X., & Seah, S. L. (2017). The Role of Normative Beliefs About Agg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Cyberbullying.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8*(8), 1138-1152. doi:10.1177/0022022116678928

Asparouhov, T., & Muthén, B. (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 disciplinary Journal, 21*(3), 329-341. doi:10.1080/10705511.2014.915181

Bae, S.-M.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exposure to risky online content, cyber victimization, perception of cyberbullying, and cyberbullying offending in Korean adolescent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23*, Article 105946. doi:10.1016/j.childyouth.2021.105946

Baldry, A. C., Farrington, D. P., Blaya, C., & Sorrentino, A. (2018). The TABBY online project: The threat assessment of bullying behaviours online approach. In: Baldry, A., Blaya, C., Farrington, D. (eds)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Cyberbullying. Palgrave Studies in Cybercrime and Cybersecurity.* Palgrave Macmillan, Cham. doi:0.1007/978-3-319-73263-3_2

Barlett, C. P. (2015). Predicting adolescents' cyberbullying behavior: A longitudinal risk analysis. *Journal of Adolescence, 41*, 86-95. doi:10.1016/j.adolescence.2015.02.006

Barlett, C. P., Gentile, D. A., Dongdong, L., & Khoo, A. (2019). Predicting cyberbullying behavior from attitudes: A 3-year longitudinal cross-lagged analysis of Singaporean youth. *Journal of Media Psychology, 31*(2), 81-91. doi:10.1027/1864-1105/a000231

Barlińska, J., Szuster, A., & Winiewski, M. (2013). Cyberbullying among adolescent bystanders: Role of the communication medium, form of violence, and empathy.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23*(1), 37-51. doi:10.1002/casp.2137

Barlińska, J., Szuster, A., & Winiewski, M. (2018). Cyberbullying among adolescent bystanders: Role of affective versus cognitive empathy in increasing prosocial cyberbystander behavior. *Frontiers in Psychology, 9*, 799. doi:10.3389/fpsyg.2018.0079

Bosworth, K., Espelage, D. L., & Simon, T. R. (1999). Factors associated with bullying behavior.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9*(3), 341-362. doi:10.1177/027243169901900300

Bretherton, I., Fritz, J., Zahn-Waxler, C., & Ridgeway, D. (1986). Learning to talk about emotions: A functionalist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57*(3), 529-548. doi:10.2307/1130334

Bronfenbrenner, U., Morris, P. A. (2006). The bioecological model of human development. In R. M. Lerner (Ed.), *Handbook of Child Development: Theoret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pp. 793-828). Hoboken, NJ: John Wiley & Sons.

Caivano, O., & Talwar, V. (2003). Receiving cybergossip: adolescents' attitudes and feelings towards responses. *Computers in Human Behaivor Reports, 10,* Article 100297. doi:10.1016/j.chbr.2023.100297

Campbell, M., Whiteford, C., & Hooijer, J. (2019). Teachers' and paretns' understanding of traditional and cyberbullying. *Journal of School Violence, 18*(3), 388-402. doi:10.1080/15388220.2018.1507826

Conway, L., Gomez-Garibello, C., Talwar, V., & Shariff, S. (2016). Face-to-face

and online: An investigation of children's and adolescents' bullying behavior through the lens of moral emotions and judgments. *Journal of School Violence, 15*(4), 503-522. doi:10.1080/15388220.2015.1112805

Crick, N. R., & Dodge, K. A. (1996).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1), 74-101.

Cuadrado-Gordillo, I., & Fernández-Antelo, I. (2016). Adolescents' perception of the characterizing dimensions of cyberbullying: Differentiation between bullies' and victims' perception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55*, 653-663. doi: 10.1016/j.chb.2015.10.005

Davis, M. H.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1), 113-126. doi:10.1037/0022- 3514.44.1.113

Elçi, A., & Seçkin, Z. (2016). Cyberbullying awareness for mitigating consequences in higher educa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4*(5), 946-960. doi: 10.1177/0886260516646095

Fischer, P., Greitemeyer, T., Pollozek, F., & Frey, D. (2006). The unresponsive bystander: Are bystanders more reponsive in dangerous emergencies?. *Europear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6*(2), 267-278. doi:10.1002/ejsp.297

Flavell, J. H., & Miller, P. H. (1998). Social cognition. In D. Kuhn, & R. S. Siegl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Cognition, perception, and language* (Vol. 2, 5th ed., pp. 851-898). New York, NY: Wiley.

Giménez Gualdo, A. M., Hunter, S. C, Durkin, K., Arnaiz, P., & Maquilón, J. J. (2015). The emotional impact of cyberbullying: Differences in perceptions and experiences as a function of role. *Computers & Education, 82*, 228-235. doi:10.1016/j.compedu.2014.11.013

Gini, G., Pozzoli, T., & Hauser, M. (2011). Bullies have enhanced moral competence to judge relative to victims, but lack moral compa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5), 603-608. doi:10.1016/j.paid.2010.12.002

Heirman, W., & Walrave, M. (2012). Predicting adolescent perpetration in cyberbullying: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Psicothema, 24*(4), 614-620.

Hong, S. H.,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doi:10.1177/0013164403251332

Hong, Y.-J., & Lee, K. (2022). Adolescent bystanders' moral emotions in cyberbullying.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43*(3), 271-295. doi:10.1177/01430343221088186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doi:10.1080/10705519909540118

Jung, T., & Wickrama, K. A. S.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doi:10.1111/j.1751-9004.2007.00054.x

Liu, C.-H., Yin, X.-R., & Huang, P.-S. (2021). Cyberbullying: Effect of emergency perception on the helping tendencies of bystanders. *Telematics and Informatics, 62*, Article 101627. doi:10.1016/j.tele.2021.101627

Lo, Y., Mendell, N. R., & Rubin, D. B.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3), 767-778. doi:10.1093/biomet/88.3.767

Machackova, H., Dedkova, L., Sevcikova, A., & Cerna, A. (2016). Empathic responses by cyberbystanders: The importance of proximity. *Journal of Youth Services, 19*(6), 793-804. doi:10.1080/13676261.2015.1112882

Maguire, L. K., Niens, U., McCann, M., & Connolly, P. (2016). Emotional development among early school-age children: Gender differences in the role of problem behaviours. *Educational Psychology, 36*(8), 1408-1428. doi:10.1080/01 443410.2015.1034090

Macaulay, P. J. R., Betts, L. R., Stiller, J., & Kellezi, B. (2018). Perceptions and responses towards cyberbullying: A systematic review of teachers in the education system.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43*, 1-12. doi:10.1016/j.avb.2018.08.004

Menesini, E., & Nocentini, A. (2009). Cyberbullying definition and measurement: Some cri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sychology, 217*(4), 230-232. doi:10.1027/0044-3409.217.4.230

Meter, D. J., Budziszewski, R., Phillips, A., & Beckert, T. E. (2021). A qualitative exploration of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cyberbullying. *TechTrends, 65*, 464-472. doi:10.1007/s11528-021-00605-9

Moxey, N., & Bussey, K. (2020). Styles of bystander intervention in cyberbullying inci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Bullying Prevention, 2*(1), 6-15. doi:10.1007/s42380-019-00039-1

Muthén, B. O. (2004). Latent variable analysis, In D. Kaplan (Ed.),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the social science*, (pp. 345-368). Thousand Oaks, CA: Sage.

Muthén, B., & Muthén, L. K. (2000). Integrating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882-891. doi:10.1111/j.1530-0277.2000.tb02070.x

Nylund-Gibson, K., Grimm, R., Quirk, M., & Furlong, M. (2014). A latent transition mixture modeling using the three-step specific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439-454. doi:10.1080/10705511.2014.915375

Ozden, M. S., & Icellioglu, S. (2014). The perception of cyberbullying and cybervictimization by university students in terms of ther personality factor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16*, 4379-4383. doi:10.1016/j.sbspro.2014.01.951

Rueth, J. E., Otterpohl, N., & Wild, E. (2016). Influence of parenting behavior on psychosocial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Mediated by anger regulation and moderated by gender. Socal Development. Advance online publication. doi:10.1111/sode.12180

Saladino, V., Eleuteri, S., Verrastro, V., & Petruccelli, F. (2020). Perception of cyberbullying in adolescentce: A brief evaluation among Italian students. *Fronteirs in Psychology, 11*, Article 607225. doi:10.3389/fpsyg.2020.607225

Schultze-Krumbholz, A., Hess, M., Pfetsch, J., & Scheithauer, H. (2018). Who is involved in cyberbullying? Latent class analysis of cyberbullying roles and their associations with aggression, self-esteem, and empathy. *Journal of Psychosocial Research on Cyberspace, 12*(4), Article 2. doi:10.5817/CP2018-4-2

Sigmoid, S. T., Stanton, A. L., & Snyder, C. R. (1995). Gender differences in coping:

A further test of socialization and role constraint theories. *Sex Roles, 33*, 565-587. doi:10.1007/BF01547718

Sobba, K. N., Paez, R. A., & ten Bensel, T. (2017). Perceptsions of cyberbullying: An assessment of perceived severity among college students. *Tech Trends, 61*, 570-579. doi:10.1007/s11528-017-0186-0

Swearer, S. M., Wang, C., Berry, B., & Myers, Z. R. (2014). Reducing bullying: Application of social cognitive theory. *Theory Into Practice, 53*(4), 271-277. doi:10.1080/00405841.2014.947221

Thornberg, R., Pozzoli, T., Gini, G., & Hong, J. S. (2017). Bullying and repeated conventional transgressions in Swedish schools: How do gender and bullying roles affect students' conceptions?. *Psychology in the Schools, 54*(9), 1189-1201. doi:10.1002/pits.22054

Van Noorden, T. H. J., Bukowski, W. M., Haselager, G. J. T., Lansu, T. A. M., & Cillessen, A. H. N. (2016). Disentangling the frequency and severity of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the association with empathy. *Social Development, 25*(1), 176-192. doi:10.1111/sode.12133

Wang, S. (2021). Standing up or standing by: Bystander invervention in cyberbullying on social media. *New Media & Society, 23*(6), 1379-1397. doi:10.1177/14614444820902541

Wright, M. F. (2017). Parental mediation, cyberbullying, and cybertrolling: The role of gender. *Computers in Human Behavior, 71*, 189-195. doi:10.1016/j.chb.2017.01.059

Yang, J., Li, S., Gao, L., & Wang, X. (2022). Longitudinal associations among peer pressure, moral disengagement and cyberbullying perpetration in adolescen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37*, Article 107420. doi:10.1016/j.chb.2022.107420

Yurdakul, Y., & Bütün Ayhan, A. (2023). The effect of the cyberbullying awareness program on adolescents' awareness of cyberbullying and their coping skills. *Current Psycholology, 42*, 24208-24222. doi:10.1007/s12144-022-03483-3

Zych, I., Baldry, A. C., Farrington, D. P., & Llorent, V. J. (2019). Are children involved in cyberbullying low on empath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 analysis of research on empathy versus different cyberbullying role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45*, 83-97. doi:10.1016/j.avb.2018.03.004

ABSTRACT

Identifying types of changes in perceptions of cyberbullying by early adolescents and its relation to gender and empathy

Hong, Yea-Ji*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latent classes of changes in perceptions of cyberbullying by early adolescents from the 4th, 6th to 7th grades and to test its relation to gender and empathy. To achieve these goals, a growth mixture model (GMM) study was conducted, using data from the 11th, 13th and 14th waves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our latent classes were identified regarding the changes in early adolescents' perceptions of cyberbullying: rapid increasing, high-level maintaining, rapid decreasing, and a low-level maintaining. Second, female students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the high-level maintaining than the rapid increasing group, and the rapid decreasing and low-level maintaining groups rather than male students. Third, regarding the early adolescents' empathy according to the perceptions of cyberbullying changes, significant group differences were suggested not only in between the rapid increasing and rapid decreasing groups but also in between the high-level maintaining and rapid decreasing groups both in terms of cognitive and emotional empathy.

Key Words: early adolescents, perceptions of cyberbullying, sex, empathy, Growth Mixture Model

* Department of Child Studies, Inha University